



방탄소년단은 21일 열린 빌보드뮤직어워즈에서 특급대우를 받으면서 '월드스타'의 면모를 과시했다. 사진은 방탄소년단이 이날 시상식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트로피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 라스베이거스(미국) | AP·뉴시스

시상식 참석 해외가수들, 방탄 신곡 '떼창' 진풍경

주최측, 무대 앞 중앙에 좌석 배치 시상식장의 가수·팬들 "BTS" 연호 빅스타 멘데스 "함께 작업하고 싶다" 9월 세계 10대도시 월드투어 출발

단순히 '글로벌 그룹'이라는 명칭을 넘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그룹이다. 지난해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방탄소년단은 국내에만 머물기는 어렵게 됐다. 이는 21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2018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레드카펫부터 시상식에서 모두 중심에 우뚝 섰다. 현지 매체들은 이들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고, 시상식 주최 측은 이들의 좌석을 무대 바로 앞 중앙에 배치했다. 시상식을 채운 팬들은 물론 해외 가수들도 연신 방탄소년단의 영어이름인 "BTS"를 외쳤고, 이들의 신곡 '페이크 러브'를 '떼창'하는 진풍경까지 펼쳐졌다.

이들의 인기를 말해주듯 방탄소년단은 시상식에서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했다.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데미 로바토 등 세계적인 스타를 제친 결과라 더욱 놀라웠다. 방탄소년단 무대를 소개한 팟스타 켈리 클

락슨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보이 그룹"이라 평했다. 세계적인 팟스타이자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 경쟁한 선 멘데스는 "방탄소년단을 정말 좋아한다. 함께 작업해보고 싶다. 이들의 공연을 처음 봤을 때 살면서 본 공연 중 제일 멋있었다. 전세계였다"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선 멘데스 뿐만 아니라 이들과 작업해보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해외 스타는 한둘이 아니다. 앞서 세계적인 듀오 체인스모커스는 전작 '러브 유어 셀프 승-허'의 수록곡 '베스트 오브 미'를 공동으로 작업했고, 미국 유명 DJ 스티브 아오키는 '마이크 드롭'의 리믹스 버전을

함께 만든데 이어 이번 3집 수록곡 '전하지 못한 진심'을 공동으로 작사, 작곡했고 피쳐링까지 맡았다. 이들의 위상은 더 커질 전망이다. 8월 서울 잠실주경기장을 시작으로 진행하는 월드투어를 통해 세계로 활동무대를 넓혀나간다. 9~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포트워스, 뉴욕, 시카고, 캐나다 해밀턴 등 북미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공연을 벌인다. 각각의 공연장 역시 최대 규모다. 적게는 1회, 많게는 3회씩 진행되는 각 공연장은 1만5000명에서 4만 명의 관객을 수용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해시태그 컷



햇살같은 여자친구

걸그룹 여자친구 유주(왼쪽)와 신비의 미모가 활짝 피었다. 비행기 좌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창가 햇살을 받으며 사진을 찍었다. 평범하게 포즈를 취한 유주 옆에서 쪽내민 입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신비의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 웃음을 준다. 유주는 "비행기 탈 때마다 같이 앉는 것 같네"라며 신비와 "짜꿍"임을 보여준다. 백슬미 기자

#스포츠동아 #여자친구 #유주 #신비 #미모블룸

이 노래

김광석·'부치지 않은 편지'

희생자 넋 기리는 노랫말 '추모곡'으로 꾸준히 불려

최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38주년 기념식에서 대중가요 한 곡이 울려 퍼졌다. 해당 노래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뜻한 가사로 행사장의 분위기를 더욱 숙연하게 했다. 뮤지컬 배우 민우혁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부른 '부치지 않은 편지'다.

'풀잎은 쓰러져도 하늘을 보고/꽃 피기는 쉬워도 아름답긴 어려워라/시대의 새벽길 홀로 걸다가/사랑과 죽음이 자유를 만나/인간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꽃잎처럼 흘러 흘러/그대 잘 가라(후렴)'

정호승 시인의 동명 작품에 시인이자 음악가 백창우가 멜로디를 입힌 '부치지 않은 편지'는 김광석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녹음한 노래로, 고인이 사망한 1996년 '가객'이란 추모앨범에 수록돼 발표됐다. 앨범에는 하모니카와 기타 반주의 '부치지 않은 편지#1', 교향악단 반주의 '부치지 않은 편지#2', 두 가지 버전이 수록됐다.

이 노래는 발표 직후 팬들의 중심으로 사랑을 받았지만, 2000년 개봉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 삽입돼 대중적 관심을 모았다. 남북한 병사들이 적과 아군의 구분 없이 우정을 나누다 총격전을 벌이는 비극적인 장면에서 흘러나와 스토리의 감성(感傷)을 배가시켰다.

이제 노랫말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고 박종철에 대한 정호승 시인의 조시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시연으로 추모의 현장에서 많이 불리고 있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당시 서울역 분향소에서 추모곡으로 사용됐다. MBC '나는 가수다', KBS 2TV '불후의 명곡' 등 음악경연프로그램에서 몇 차례 불리기도 했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편집 | 인도영·김형조 기자

칸 밝힌 '버닝', 국내 관객과 수수께끼 푼다

이창동 감독·유아인·스티븐 연·전종서 오늘부터 전국 돌며 라이브 토크 진행 관객들이 쏟아낸 의문 속 시원히 응답

칸을 화려하게 밝힌 영광의 주역들이 이제 국내로 자리를 옮겨 영화를 둘러싼 수수께끼를 풀어간다. '버닝'의 이창동 감독과 주연배우 유아인, 스티븐 연 그리고 전종서가 23일부터 국내 관객 앞에 나선다.

17일 공개된 '버닝'은 국내 개봉일과 제71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상영 일정이 맞물리면서 영화가 국내에서 소개되는 초반 그 주역들이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다. 물론 칸 현지에서 호평을 이끌어냈고, 이를 기회 삼아 더 넓은 무대에서 작품을 알린 이들은 그 책임을 마치고 돌아와 국내

관객이 꺼내는 다양한 반응과 물음에 응하는 시간을 갖는다.

출발은 22일 서울 6개 극장에서 16회 동안 진행한 무대인사부터다. 유아인과 스티븐 연, 전종서가 나란히 참석해 관객과 만났다. 이 같은 '인사'를 마무리한 뒤 23일부터는 직접 '이야기'를 풀어낸다.

23일 오후 7시 이들 세 명의 주연배우와 연출자인 이창동 감독은 서울 영등포CGV에서 영화를 둘러싼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꺼내는 라이브 토크를 진행한다. 이는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15개 극장으로도 동시 생중계될 예정이다.

'버닝'은 개봉 이후 그 이야기와 인물들을 둘러싼 의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은유와 함의로 가득한 영화가 만들어낸 궁금증도 상당하다. 한 편의 영화를 향해 이렇게 다양한 평가와 분석이 따를 수



한국제영화제에서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낸 영화 '버닝'의 주역들. 사진제공 | CGV 아트하우스

있을까 싶을 만큼 관객 개개인의 반응도 다채롭다. 때문에 감독과 배우들이 직접 각자의 생각을 풀어내는 자리를 향한 관객의 시선도 어느 때보다 뜨겁다.

먼저 잡힌 해외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하는 스티븐 연을 제외한 나머지 배우 두

명과 감독은 관객과 이야기하는 기회를 더 갖는다. 이들은 24일 오후 7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29일 밤 9시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다시 관객과 만나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밝힌다.

이해리 기자 gafi1024@donga.com

장혁의 무한 변신

전작 '돈꽃'에선 절제된 감정연기 '기름진 멜로'선 여성한 건달 두목 진지한데 웃긴 색다른 매력 발산

연기자 장혁이 드라마마다 팔색조 같은 변신으로 계속해서 성과를 내놓고 있다. 장혁은 현재 방송중인 SBS 월화드라마 '기름진 멜로'에서 어리바리한 건달 두목

역을 맡아 코믹과 진지함을 오가고 있다. 전작 MBC '돈꽃'에서 절제된 감정연기로 호평을 받았을 때와 전혀 다른 매력으로 시청자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2월 종영한 '돈꽃'으로 새로운 '인생작'과 '인생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장혁은 그 여운이 가시자마자 새로운 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기름진 멜로' 속 장혁은 웃기지만 정작 자신은 웃지 않고 진지한 표정을 지어 웃음을 안긴다. 건달 두목 역할인 그는 무게를 잡거나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

지 않는다. 긴박한 상황에 놓여도 폭력보다는 농담으로 상황을 유쾌하게 해결하려고 한다. 장혁은 이러한 '어슬픈 건달' 설정을 독특한 말투와 다양한 제스처로 훌륭하게 표현해내고 있다. 지난해 방송한 KBS 2TV 예능프로그램 '응답하라-철부지 브로망스'에서 보여준 엉뚱함을 캐릭터에 그대로 녹여낸 모습이다. 또 걸과 속이 다른 이미지를 통해 강조되는 캐릭터의 인간미는 장혁이 직접 아이디어 낸 선글라스와 땀뿜 패션으로 그 깊이를 더하고 있다.

순진무구한 모습도 보여준다. 상대역 정려원의 거절해도 굴하지 않고 애정을 표하는 그는 "내일 되면 나를 가질 기회가 없어" "짜사랑해도 된다고 당신이 옆구리 찔렀어?" 등의 말을 능청스럽게 내뱉는 등 순수한 매력까지 드러내고 있다.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장혁이 진지함과 코믹을 넘나들며 액션, 로맨스 연기까지 다채로운 변신을 보여주고 있다. '기름진 멜로'에서 진지한 연기로 웃음을 주는 연기는 그의 색다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